

일부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병원임상실습 실태 및 만족도 관련요인[†]

최성수^{1,2} · 박 종³ · 류소연³ · 한미아^{3*}

¹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²전남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응급구조사

³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and associated factors with satisfaction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ung Soo Choi^{1,2} · Jong Park³ · So Yeon Ryu³ · Mi Ah Han^{3*}

¹Dep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²EMT-Paramedic,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³Professor,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Abstract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and associated factors with satisfaction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Methods : The study subjects were 498 students who finished clinical practice course in 9 universities. General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frequency of some medical procedure and practice satisfaction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associ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and satisfaction was tested by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Of 498 students, 257 (51.6%) subjects were male and the mean age was 22.1±2.01. The overall satisfaction score of clinical practice was 96.76±18.04. Male students had higher satisfaction

접수일 : 2012년 02월 17일 수정일 : 2012년 07월 02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8월 16일

*Corresponding Author : Mi Ah Ha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501-759, Republic of Korea

Tel : +82-62-230-6481 Fax : +82-62-225-8293 E-mail : mahan@chosun.ac.kr

[†]이 논문은 2012년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임.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scores than that of female. The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 emergency room practice wanted to work in hospital or fire station and they had a tendency to take paramedic as their lifelong career. The students preferred to practicing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hat hire the paramedic.

Conclusion : Gender, grades, future jobs, occupational views, practical places, agency orientation, departments, and educators were associated with educational satisfaction. The practice program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increase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in student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Emergency medical services, Satisfaction, Students

1. 서론

현장실습은 학교라는 제한된 교육의 장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기관에서 실제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기본이론 위에 창의력과 응용력의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방법으로 아공학의 필수 교육과정이다[1]. 임상실습(Clinical practice)은 보건계열 학생에게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조화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자체가 단순한 실습만이 아니라 복합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조직으로의 투입과정이며[2], 이론적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키는 물론 현장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3].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병원에서의 임상실습과 소방서 구급대의 구급차 동승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실에서의 임상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응급상황에서의 다양한 환자 처치를 경험하고, 구급차 동승 실습을 통해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환자를 처치하고 돌보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준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4].

임상실습이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임상이나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될 의료 인력을 교육시키는 기회라는 점과 또한 첨단 의학기술을 도입 활용하고 있는 현장(임상)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채택되고 있는 현장실습 교육은 내용면에 있어서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현실이나 시대 상황에 걸맞게 충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5]. 또한 현장실습의 경우 자신의 전공을 좀 더 현실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과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앞으로 자신이 종사하게 될 직업과 관련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6], Byeon[7]은 현장실습이 전공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실습시 실습기관에 만족하지 못한 전공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진로결정에 있어 전공과 무관한 다른 영역으로 떠나버리는 전문 인력 손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임상실습현장은 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환경에 의해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8], 임상실습에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는 일이 많을 수 있으며 기대에 어긋나는 임상실습경험으로 위축

내지는 좌절할 수도 있다[9]. 그러므로 이러한 임상실습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실습기관의 부족한 환경요인을 계획하고 수정 보완해야 하며[10], 현장실습 만족도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여 현장실습교육 만족도의 향상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11].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면, 임상환경과 대인관계, 연령, 학년, 종교 등의 개인적 특성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실습 기관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실습지도자 활용의 교수 효율성 등이 있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으면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인 임상수행능력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2]. 하지만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실태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2007년 보건복지부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임상실습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의하면, 병원전 응급의료는 현재 응급구조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응급구조사들은 양성과정에서 충분한 임상수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병원전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자신감 결여,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임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실습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각 위탁실습 의료기관은 적절한 임상실습프로그램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형식적인 실습(주로 참관)이 진행되고 있어 임상실습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임상능력 배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임상실습을 경험한 일부 응급구조(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실태와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임상실습프로그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에 소재한 9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2, 3, 4학년 학생 중에 병원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으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509명을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2일까지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특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전 해당 대학의 교수에게 조사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의 작성방법을 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509부는 모두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11부를 제외한 498부의 설문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병원임상실습실태, 병원임상실습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대학수준, 학년, 대학생활 주거형태, 동아리 등 모임활동, 등하교 교통수단, 과 선택동기, 희망 취업 분야, 평생직업관을 조사하였다.

2) 병원임상실습실태

병원임상실습실태에 관한 사항은 임상실습 시작학년, 실습시기, 실습횟수, 실습기간, 실습전 오리엔테이션, 실습지침서, 실습기관 결정자, 실습기관, 실습장소, 실습기관의 오리엔테이션, 실습기관의 실습지침서(프로그램), 근무시간, 담당부서, 실습기관의 교육(집단토론, 환자사례 발표 등) 및 교육담당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병원임상실습 만족도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Shim[14]이 사용한 도구를 Jung[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 중 실습내용 및 방법 6문항, 실습지도방법 3문항, 실습환경 5문항, 실습시간 4문항, 실습평가방법 2문항, 병원임상실습 후 만족감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57$ 이었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AS프로그램(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병원임상실습실태, 선호도, 병원임상실습만족도와 술기시행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병원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t-검정과 분산분석(ANOVA) 실시하였고,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항목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 = 0.05$ 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병원임상실습 실태 및 만족도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대학수준, 현재학년, 대학생활의 주거형태, 동아리활동 등의 모임, 등·하교 교통수단, 과 선택동기, 졸업 후 희망취업분야, 응급구조사를 평생직업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로 남자가 257명(51.6%), 연령은 21~22세가 210명(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392명(78.7%)으로 많았다.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가 266명(53.4%)이었으며, 대학 생활 중 주거형태로는 자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이 197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리 활동 등의 모임은 400명(80.3%)에서 하지 않고 있었다. 등·하교 교통수단은 도보가 244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동기로는 본인의 적성에 맞아서 선택한 학생이 187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업 후 희망 취업분야에서는 공무원(소방, 해양경찰)을 원하는 학생이 280명(59.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198명(39.8%)의 학생이 응급구조사를 평생직업으로 삼겠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병원임상실습 실태

병원임상실습 실태는 2학년때 370명(74.3%)으로 실습을 가장 많이 시작하였고, 실습시기는 398명(80.1%)으로 방학 중에 가장 많이 실습하였다. 실습횟수로는 2회가 284명(57.1%)으로 많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49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257	51.6
	Female	241	48.4
Age	≤20	108	21.7
	21~22	210	42.2
	23~24	121	24.3
	≥25	59	11.9
College	3 year program	392	78.7
	4 year program	106	21.3
Grade	1st	180	36.1
	2nd	266	53.4
	3rd	52	10.4
Residence type	Own house	197	39.7
	Boarding	176	35.5
	Dormitory	107	21.6
	Others	16	3.2
Club activities	Yes	98	19.7
	No	400	80.3
Transportation from school	On foot	244	49.4
	By public transportation	173	35.0
	Others	77	15.6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Aptitude	187	37.7
	High employment rate	153	30.9
	Recommendation by other people	99	20.0
	Others	57	11.5
Future employment fields	Hospital	127	26.7
	Public officers	280	59.0
	Others	68	14.3
Lifelong career as an EMT*	Very affirmative	92	18.5
	Affirmative	198	39.8
	So so	136	27.3
	Negative	72	14.5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았으며, 1회실습 기간은 248명(49.8%)이 4주 실습을 하였다. 실습전 학교에서 지도교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의 경우는 464명(93.2%)이 실시하였으며, 실습지침서는 380명(76.3%)이 있다고 하였고, 실습기관은 만족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19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실습기관으로는 종합병원의 경우가 402명(81.1%)

이였으며, 실습장소는 응급실이 488명(98.2%)으로 가장 많았다. 실습기관의 오리엔테이션은 431명(86.6%)이 실시하였으며, 실습기관의 실습지침서(실습프로그램)는 306명(61.5%)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무시간은 3교대(8시간) 근무가 296명(5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기관에서 실습학생을 담당한 부서로는 응급의학과가 377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기관의 교육(집단토론, 환자사례 발표 등)은 172명(34.7%)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담당자로는 응급구조사가 207명(41.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병원임상실습 만족도

실습내용 및 방법 영역은 평균 3.59(±0.73)점이며, 그중 ‘병원임상실습교육은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한다’에서 4.13(±0.89)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습지도 방법 영역은 평균 3.47(±0.95)점이며, ‘지도자는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가 3.57(±1.01)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습환경 영역은 평균 3.43(±0.79)점이며, ‘임상 실습장소로 시설이 적당하다’가 3.58(±0.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시간 영역은 평균3.50(±0.71)점이며, ‘출·퇴근시간이 지켜진다’가 3.81(±0.95)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습평가방법 영역은 평균 3.57(±0.83)점이며, ‘실습평가 기준을 아는 것이 실습에 도움을 준다’가 3.66(±0.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임상실습 후 만족감 영역은 평균 3.58(±0.77)점으로 ‘졸업후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가 4.01(±0.90)점으로 가장 높았다. 총 135점 만점에 96.76(±18.04)점이며, 평균 3.56(±0.79)점이다. 6개 영역중 병원임상실습 후 만족감 영역이 평균 3.78(±0.77)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환경 영역이 평균 3.43(±0.79)로 가장 낮았다. 27

Table 2.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N=49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tarting grade of clinical practice	1st	370	74.3
	2nd	124	24.9
	3rd	4	0.8
Period of clinical practice	During semester	48	9.7
	During vacation	398	80.1
	Both	51	10.3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	15	3.0
	2	284	57.1
	3	145	29.2
	≥ 4	53	10.7
Timescale per clinical practice (weeks)	≤ 3	120	24.1
	4	248	49.8
	≥ 5	130	26.1
Orientation for clinical practice by professor	Yes	464	93.2
	No	34	6.8
Guidebook for clinical practice in school	Yes	380	76.3
	No	118	23.7
Reason of selecting institution for clinical practice	B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19	24.2
	Recommendation by professors	92	18.7
	Recommendation by seniors	45	9.2
	For convenience	25	5.1
	By distance from home	96	19.6
	By school schedule	49	10.0
	By custom	40	8.2
	Others	25	5.1
Institution for clinical practice	Clinic	94	19.0
	General hospital	402	81.1
Place for clinical practice*	Emergency room	488	98.2
	Intensive care unit	127	25.6
	Operating room	149	30.0
	Wards	98	19.7
	Outpatient	18	3.6
	Others	18	3.6
Orientation for clinical practice by institution	Yes	431	86.6
	No	67	13.5
Guidebook for clinical practice in institution	Yes	306	61.5
	No	192	38.6
Type of work	3 shifts(8 hrs)	296	59.9
	2 shifts(12hrs)	112	22.7
	Two day shift(24hrs)	17	3.4
	Day shift(8 hrs a day for 5 days)	54	10.9
	Others	15	3.0
Administrative department	Emergency medicine	377	77.1
	Other medical department	16	3.3
	Nursing and others	96	19.6
Administrative educator	No	172	34.7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207	41.7
	Emergency medicine doctor	81	16.3
	Nurse and others	36	7.3

* repeated response for practice place

개 문항 중 ‘임상실습교육은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한다’ 문항에서 4.13 (±0.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 실습기관의 실습생 수는 적절하다’ 문항이 3.25(±1.00)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2.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와

Table 3.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135 of full marks-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	Standard deviation
Programs & method	The practice program provided new experiences.	4.13	0.89
	Programs were appropriate.	3.61	0.92
	The education focused on practice	3.60	0.99
	I acquired much information on majors from the practice institutes.	3.53	0.99
	Theories I learned at school were actively applied for the practice.	3.35	0.91
	The education was given according to the program manual.	3.31	0.98
Means		3.59	0.73
Method of instruction	Instructors led us to apply theories for clinical practice.	3.57	1.01
	Instructors were faithful to education.	3.44	1.10
	Instructors provided interesting education programs.	3.39	1.03
Means		3.47	0.95
Environment	The institute is appropriate for clinical practice.	3.58	0.98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are appropriate for clinical practice.	3.54	0.93
	There are a variety of cases where we can apply what we learned at school.	3.40	1.11
	Enough materials for clinical practice are available.	3.38	1.10
	The number of interns in an institute was appropriate.	3.25	1.00
Means		3.43	0.79
Time of practice	Time to start and finish working were on time.	3.81	0.95
	We had enough practice days.	3.50	0.92
	Daily hours of practice were appropriate.	3.45	0.94
	Time allocated for each program was appropriate.	3.26	0.89
Means		3.50	0.71
Method of evaluation	Knowing the standard of evaluation was helpful for practice.	3.66	0.89
	The evaluation method was satisfactory.	3.49	0.98
Means		3.57	0.83
Satisfaction after practice	The practice will be helpful for future jobs a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4.01	0.90
	I felt the practice is absolutely needed.	4.00	0.93
	I had good results in acquiring skills.	3.87	0.96
	I was satisfied with my major.	3.82	0.92
	Anxiety I felt before the practice was relieved.	3.62	0.98
	I had a confidence in my major.	3.59	0.96
	The staff was kind to us and we could have good relationships.	3.58	1.06
Means		3.78	0.77
Total means		3.56	0.79
Total sum		96.76	18.04

의 관계는 성별($t=5.30, p<.001$), 학년($F=3.94, p=.020$), 희망취업분야($F=6.87, p=.001$), 평생 직업관($F=5.44, p=.001$)의 항목에서 병원임상

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연령과 대학수준, 주거형태, 동아리 활동 등의 모임, 등·하교 교통수단, 과 선택동기 항목에서

Table 4.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M±SD	t or F	p-value
Gender	Male	100.80±17.65	5.30	<.001
	Female	92.44±17.48		
Age	≤20	94.71±17.88	0.78	.506
	21~22	96.69±17.19		
	23~24	97.95±18.32		
	≥25	98.29±20.68		
College	3 year program	97.20±18.67	1.20	.230
	4 year program	95.08±15.47		
Grade	1st	98.32±17.00	3.94	.020
	2nd	96.94±19.14		
	3rd	90.42±14.30		
Residence type	Own house	94.93±19.43	1.29	.278
	Boarding	97.47±14.40		
	Dormitory	98.79±17.56		
	Others	98.94±20.82		
Club activities	Yes	98.87±20.18	1.29	.200
	No	96.24±17.47		
Transportation from school	On foot	97.78±17.30	1.18	.309
	By public transportation	95.11±18.40		
	Others	97.52±19.69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Aptitude	99.01±17.36	1.96	.119
	High employment rate	94.79±17.81		
	Recommendation by other people	95.09±20.38		
	Others	98.00±16.72		
Future employment fields	Hospital	97.68±18.53	6.87	.001
	Public officers	97.84±17.50		
	Others	89.13±18.60		
Lifelong career as an EMT*	Very affirmative	101.30±16.54	5.44	.001
	Affirmative	98.24±17.10		
	So so	94.32±19.49		
	Negative	91.44±17.93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는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Table 4〉.

2) 병원임상실습 실태에 따른 만족도

병원임상실습의 실태와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는 실습전 학교에서 지도교수의 오리엔테이션($t=3.57$, $p<.001$)과 실습지침서($t=2.27$, $p=.024$)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실습한 장소에 따라 응급실($t=-2.46$, $p=.014$), 수술실

($t=2.24$, $p=.026$), 병동($t=2.27$, $p=.025$)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t=4.91$, $p<.001$)과 실습기관의 실습지침서(프로그램)($t=5.13$, $p<.001$), 담당부서($F=19.1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기관의 교육(집단토론, 환자사례 발표 등) 및 교육담당자($F=32.31$, $p<.001$)에 따라 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시작학년, 임상실습 시기, 임상실습 횟수, 임상실습 기간, 임상실

Table 5.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status of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Category	M±SD	t or F	p-value
Starting grade of clinical practice		1st	97.22±18.93	1.46	.234
		2nd	95.00±15.02		
		3rd	107.75±17.31		
Period of clinical practice		During semester	94.63±16.67	0.58	.558
		During vacation	96.76±18.45		
		Both	98.55±16.26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	106.80±13.99	1.97	.117
		2	96.94±19.73		
		3	95.21±15.71		
		≥ 4	97.66±14.34		
Timescale per clinical practice (weeks)		≤ 3	96.49±19.37	2.22	.110
		4	95.43±17.57		
		≥ 5	99.52±17.49		
Orientation for clinical practice by professor		Yes	97.52±17.55	3.57	<.001
		No	86.20±21.44		
Guidebook for clinical practice in school		Yes	97.77±17.33	2.27	.024
		No	93.47±19.89		
Reason of selecting institution for clinical practice		B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99.55±18.31	1.47	.174
		Recommendation by professors	96.62±19.21		
		Recommendation by seniors	99.07±13.91		
		For convenience	97.16±15.23		
		By distance from home	92.16±18.63		
		By school schedule	97.33±18.26		
		By custom	98.53±18.40		
Institution for clinical practice		Clinic	95.51±18.12	-0.74	.461
		General hospital	97.04±18.08		
Place for clinical practice	Emergency room	Yes	97.13±17.80	-2.46	.014
		No	82.33±20.88		
	Intensive care unit	Yes	94.30±17.71	1.85	.065
		No	97.72±17.97		
	Operating room	Yes	94.10±18.14	2.24	.026
		No	98.02±17.77		
	Wards	Yes	92.73±20.60	2.27	.025
No		97.86±17.11			
Outpatient	Yes	101.78±11.42	-1.82	.084	
	No	96.66±18.13			
Orientation for clinical practice by institution		Yes	98.29±17.62	4.91	<.001
		No	86.91±17.74		
Guidebook for clinical practice in institution		Yes	99.96±18.34	5.13	<.001
		No	91.64±16.34		
Type of work		3 shifts(8hrs)	97.00±17.39	2.22	.066
		2 shifts(12hrs)	99.17±19.63		
		Two day shift(24hrs)	87.65±14.04		
		Day shift(8 hrs a day for 5 days)	95.81±15.69		
Administrative department		Emergency medicine	99.37±16.06	19.10	<.001
		Other medical departments	88.06±18.98		
		Nursing and others	87.69±20.42		
Administrative educator		No	89.01±17.17	32.31	<.001
		Emergency medicine technician	104.96±16.44		
		Emergency medicine doctor	92.21±16.66		
		Nurses and others	98.42±10.27		

습기관 결정자, 실습기관, 실습장소에서는 중환자실과 외래, 근무시간 형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3)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항목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가($\beta = 8.57$, $p < .001$) 유의하게 높았고, 학년에서는 4학년보다 2학년의 경우가($\beta = 7.80$, $p = .004$) 유의하게 높았으며, 희망 취업분야에서는 기타(산업체, 진학 등)의 경우보다 병원의 경우와($\beta = 6.98$, $p = .001$), 공무원의 경우가($\beta = 3.98$, $p = .035$) 유의하게 높았다. 응급구조사를 평생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보다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beta = 5.62$, $p = .025$) 유의하게 높았다. 실습시 경험한 장소에서는 응급실을 경험한 경우가

Table 6.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
Gender(/female)	Male	8.57	1.48	<.001
Grade(/3rd)	1st	7.80	2.68	.004
	2nd	4.07	2.55	.111
Future employment fields(/oters)	Hospital	6.98	2.15	.001
	Public officers	3.98	1.88	.035
Lifelong career as an EMT*(/negative)	Very affirmative	5.62	2.50	.025
	Affirmative	2.53	2.19	.248
	So so	1.23	2.28	.588
Orientation for clinical practice by professor(/no)	Yes	5.15	2.86	.072
Guidebook for clinical practice in school(/no)	Yes	2.44	1.68	.148
Place for clinical practice	emergency room(/no)	Yes	10.70	.043
	operating room(/no)	Yes	-2.48	.170
	wards(/no)	Yes	-3.99	.048
Orientation for clinical practice by institution (/no)	Yes	3.95	2.29	.085
Guidebook for clinical practice in institution(/no)	Yes	0.25	1.60	.876
Administrative department (/nursing and others)	Emergency medicine	7.37	1.96	<.001
	Other medical department	1.39	4.29	.746
Administrative educator (/no)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10.31	1.81	<.001
	Emergency medicine doctor	-0.26	2.21	.908
	Nurses and others	7.11	2.89	.014

F=10.87(p<0.001), R²=0.314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beta = 10.70, p = .043$) 유의하게 높았지만, 병동을 경험한 경우는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beta = -3.99, p = .048$) 유의하게 낮았다. 임상실습을 간호부 및 기타에서 담당하는 경우보다 응급의학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beta = 7.37, p < .001$) 유의하게 높았고, 실습기관에서의 교육(집단토론, 환자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응급구조사가 교육을 하는 경우가 ($\beta = 10.31, p < .001$), 간호사 및 기타가 교육하는 경우가 ($\beta = 7.11, p = .014$)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의 설명력(R^2)은 31.4%였다(Table 6).

IV. 고찰

병원임상실습은 응급구조(학)과의 학생에게 대학에서 학습한 전공 분야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임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지식, 기술, 태도면에 행위변화를 주는 것이다[16]. 이론적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키고 현장 적용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자신의 전공을 좀 더 현실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병원임상실습의 실태를 파악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병원임상실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병원임상실습 만족도 6개영역 중에서 실습환경 영역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과거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서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 실습환경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17]. 그 중에서도 한 실습기관의 실습생 수에 대한 문항이 27개 문항 중 가장 낮았다. 병원임상실습 특성상 집단교육보다는 소규모 그룹이나 1:1 현장교육이 필요하지만, 많은 수의 학생이 같은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습생 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실습학생에 비해 지도하는 교수진(임상실습지도자)이 부족하여 만족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습학생 수나 지도자의 수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하였고, 향후 병원임상실습에서 임상실습지도자와 적절한 실습생 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는 성별, 학년, 희망취업분야, 평생직업관, 담당부서, 실습기관의 교육(집단토론, 환자사례 발표 등) 및 교육담당자 등이었다.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응급구조사 업무의 특성상 흥부압박, 부목 등 체력이나 힘을 요하는 술기가 많아[19]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실습 과정 참여가 높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희망 취업분야를 병원과 공무원으로 응답한 경우나 응급구조사를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 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가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들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반대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들 요인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임상실습이 병원이나 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기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나 선배와의 접촉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관을 취업분야로 선정했을 수 있고,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를 평생직업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한 연구를 보면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실습과 무관한 직종이나 전공을 바꾸기 보다는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많았다[7]. 실습장소에서는 응급실을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실

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담당부서가 간호부 및 기타보다 응급의학과인 경우가 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응급의학과와 응급구조(학)과가 응급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응급실은 응급의학과에서 담당을 하며, 응급환자 및 응급상황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부나 행정부서에서 실습을 담당하는 경우가 19.6%로 과거 Kwon[1]의 연구에서 응급구조학과 실습의 주관 부서가 '간호과' 41.4%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학교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실습기관 선정시 관련 전문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선배로서의 경험을 제시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beta = 10.31, p < .001$) 가장 높았다. 향후 학교와 실습기관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실습을 응급구조사에 의한 실습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Koh 등[20]의 연구에서 현장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되면 실습학생들의 실습 중 적절한 지도 및 감독하에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의 대상자가 일부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 전체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셋째,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임상 술기시행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과거 방사선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실습 술기 경험은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8] 향후 술

기 시행 여부나 빈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병원임상실습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병원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병원임상실습의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계획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9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질문지 중 11부를 제외한 498부를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2일까지였으며, t-검정,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병원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병원임상실습 만족도는 135점 만점 중 96.76(± 18.04)점이었으며 평균 3.56(± 0.79)점이었다. 6개영역 중 임상실습 후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3.78(± 0.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환경영역이 평균 3.43(± 0.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총 27개 문항 중에서 임상실습교육은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한다는 경우에서 평균 4.13(± 0.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 실습기관의 실습생 수에 대한 경우에서 3.25(± 1.00)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 학년, 희망취업분야, 평생직업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은 남자($\beta = 8.57, p < .001$), 학년은 2학년($\beta = 7.80, p = .004$), 희망취업분야는 병원($\beta = 6.98, p = .001$)과 공무원($\beta = 3.98, p = .035$), 응급구조사 직업을 평생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경우($\beta = 5.62, p = .025$)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임상실습 상태에서는 실습전 지도교수의 오리엔테이션, 실습지침서와 실습장소에 따라 응급실, 수술실, 병

동의 경험, 실습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실습기관의 실습지침서(프로그램), 담당부서, 응급구조사의 근무, 응급구조사의 실습지도, 실습지도자의 피드백, 실습기관의 교육(집단토론, 환자사례 발표 등) 및 교육담당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응급실에서 실습을 경험한 경우($\beta = 10.70, p = .043$), 병동에서 실습을 경험한 경우($\beta = -3.99, p = .048$), 응급의학과에서 실습을 담당 한 경우($\beta = 7.37, p < .001$), 실습기관의 교육(집단토론, 환자사례 발표 등) 및 교육담당자에서 응급구조사가 교육을 한 경우($\beta = 10.31, p < .001$)와 간호사 및 기타가 교육을 한 경우($\beta = 7.11, p = .014$)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생들의 병원임상실습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여 향후 병원임상실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병원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선정시 실습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실습학생이 소수의 실습기관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구조사나 응급의학과 의사 등의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실습을 주관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응급 관련 상황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응급실에서 주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못한 술기 수행 여부나 빈도 등을 조사하여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Kwon HR. Study on reality field practice and improvements by students of Dep.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orean J Emerg Med Ser 2002;12(6):15-26.
2. Kim SY, Kim CH, Song JY, Ahn DH, Chae JB. An investigation of factors which influence physical therapy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linical practice. KAUTPT 2004;11(3): 71-84.
3. Park IS, Lee S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007;7(4): 295-302.
4. Baek ML.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03;7(1):95-108.
5. Cho KJ, Park YS, Lee BK, Park JH, Chung SH. Suggestions for on-site training programs in 3-year health colleges. Journal of Allied Health Sciences 1997;6(1):9-28.
6. Kim SH. The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ork practicum on career development : Laying stress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Seoul, Korea.
7. Byeon BB. Research on the career decision and professional identity and major-related experience's satisfaction with the prospective youth lea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1, Seoul, Korea.
8. Shin SG, Im IC.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and related variables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The Korea

- Contents Society 2010;9(10):276–284.
9. Lee OS, Suh IS. A study on the kind of nursing activities which nursing student had experienced and the degree of stress perceived during the period of nursing activit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1995;39:183–194.
 10. Lee UN, Woo OJ.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before entrance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profession after entering school of nursing. *The Korean nurses* 1971;10(1):25–37.
 11. Kim SK. A study of the tourism education programs in two year colleges – focusing on Korea and America –.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2000, Jeju, Korea.
 12. Kang HO.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0, Daegu, Korea.
 13. Lee JI. A comparison of the four-year emergency paramedic training programs of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1, Gongju, Korea.
 14. Shim HS.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by dental hygiene student at Kwangju-Chonnam area colle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1, Gwangju, Korea.
 15. Jung YH. Satisfaction on the clinical training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techniq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04, Gyeongbuk, Korea.
 16. Park DS, Nam KW.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07;11(3):47–64.
 17. Choi ES, Lee IS. A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n field practice of E.M.T. college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1997;1(1):87–99.
 18. Yoon JS.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linical nurse's practica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8, Seoul, Korea.
 19. Na JH, Park SO, Baek KJ, Hong DY, Lee KR, Lee MH. Analysis of the time-dependent changes of chest compression quality and related rescuer factors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y lay-persons. *J Korean Soc Emerg Med* 2011;22(5):431–437.
 20. Koh BY, Kwak MC, Sin HN. A study on the performance activities in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field training. *Korean J Emerg Med Ser* 2009;03(1):55–64.